목 차

- 시작하며
- 질문 1. 나는 누구인가?
- 질문 2. 나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 질문 3. 나는 왜 관계를 원하는가?
- 질문 4.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 죄란 무엇인가?
- 질문 5. 죄는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 질문 6.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가?
- 나가며

시작하며 — 성경이 말하는 인간

제 2 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신론(Doctrine of God)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라면, 인간론(Theological Anthropology)은 하나님 앞에 선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철학도, 심리학도, 사회학도 오랫동안 붙들어 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왜 인간론을 공부해야 할까요? 김인허 교수는 인간론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경의 주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론을 모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인간론은 우리의 자기 이해와 정체성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의 방향도 흔들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질문들을 읽어보려 합니다. 읽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에 표시해 두십시오.

-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에는 의미가 있는가?**
- **인간은 단순히 진화의 산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존재인가?**

-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가? 몸과 영혼은 어떤 관계인가?**
- **인간은 왜 혼자서는 살 수 없는가? 왜 관계를 그토록 원하는가?**
- **나는 왜 선한 것을 알면서도 악한 것을 선택하는가?**
- **죄란 무엇인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공평한가?**
- **인간은 스스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 **이렇게 망가진 인간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가?**

어떠십니까? 한두 개는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질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성경을 많이 아셔도 우리 마음 어딘가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함께 다루려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함께 다루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고, 이웃을 바르게 대할 수 있으며,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날 즈음, 여러분이 이 고백 위에 함께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입니다. 교회는 나와 너가 함께 이 정체성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질문 1. 나는 누구인가?

— 가장 오래된 질문 앞에서

멈추게 되는 질문

바쁘게 달려가던 삶이 잠시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문득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삶의 바닥에서 이 질문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깊은 밤 —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리에서 이 질문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드디어 이루었을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성공의 정점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밀려오고 결국 이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닥에서도, 정상에서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일상의 틈에서도 이 질문은 찾아옵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이 질문을 완전히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을 맡습니다. 누군가의 자녀이고, 부모이고, 직장인이고, 시민입니다. 그러나 삶이 잠시 멈추는 순간, 우리는 역할이 아닌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든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답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γνῶθι σεαυτόν, Know thyself)."** 이 문구는 특정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일곱 현인(Seven Sages)으로부터 유래했다고 전해지며, 신전 자체의 격언으로 오랫동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Socrates, BC 470-399)가 이것을 자신의 철학적 삶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그의 말처럼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광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성찰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나는 누구인가?"는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걸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너 자신을 알라'**는 명령은 정작 '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Plato, BC 428-348)은 인간을 몸 안에 갇힌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참된 나는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불멸하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고향은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동굴 안에 갇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실재를 보기 위해서는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플라톤의 이 인간 이해는 이후 서양 사상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몸보다 영혼을, 물질보다 이성을 우위에 두는 이 **이원론적 시각**은 중세 기독교 신학에도 스며들었고,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인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열등하다**'는 생각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는 스승 플라톤과 달리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보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몸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rational animal)'**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이며, 이 **이성을 온전히 발휘하고 덕(virtue)을 실천하며 사는 삶**, 즉 **에우다이모니아(εὐδαιμονία)**가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단순한 쾌락이나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꽃이 충분한 햇빛과 물을 받아 활짝 피어날 때 가장 꽃다운 것처럼, 인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성과 덕을 온전히 발휘할 때 가장 인간다운 상태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번영하는 삶'** 혹은 **'활짝 피어난 삶'**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이성만으로 인간을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랑하고, 고통받고, 용서하고, 의미를 찾는 인간의 모습은 이성만으로는 담기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위대하지만, 그 답 앞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17 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은 인간에 대한 예리한 통찰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roseau pensant, thinking reed)"**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가장 연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우주 전체가 인간을 압도하기 위해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줄기 수증기,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압도한다 해도, 인간은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여전히 더 고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우주가 자신을 압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주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직시했습니다. 인간은 위대합니다. 광대한 우주 앞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사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참합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도 공허함을 느끼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 모순의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데 있고, 비참함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20 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고 선언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먼저 세상에 던져지고, 그 후에 스스로 자신이 무엇인지를 만들어갑니다.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며, 그

자유 안에서 스스로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트르 자신도 이 절대적 자유가 가져오는 불안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스스로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인간을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답

서양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물었다면, 동양의 철학자들은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던졌습니다.

공자(孔子, BC 551-479)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보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인간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에게 인간의 본질은 **인(仁**),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본성을 회복해 가는 존재라고 보았지요.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자신을 살핀다(吾日三省吾身). 남을 위한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 친구와의 교제에 믿음이 있었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충분히 익혔는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자가 본 인간의 과제였습니다. 공자의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君子)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완성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다움을 회복하려는 노력만으로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이 질문에 더 급진적으로 답합니다. **붓다**(Buddha, BC 563–483)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아(無我, anattā)**의 가르침입니다. 붓다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을 다섯 가지 요소의 집합으로 분석했습니다. 몸(色), 느낌(受), 인식(想), 의지(行), 의식(識)이 그것입니다. 이 다섯 요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그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요소들이 잠시 모여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이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나는 누구인가?"에 답하는 대신, "나라는**

것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누가 수행하고 누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책임지는 인간의 깊은 경험은 "나"라는 존재 없이는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노자(老子)와 도교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도(道)**, 즉 **우주의 근본 원리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다**고 봅니다. 노자에게 인간은 스스로를 규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흐름 안에 자신을 내맡기는 존재입니다. 억지로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무위(無爲)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위(無爲)'**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힘을 쓰거나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인간도 자신의 본래 모습을 억지로 규정하거나 꾸미지 않고 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참된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 이름 붙일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道)조차도 이름 붙이는 순간 그 본질에서 멀어지듯이, 인간도 스스로를 규정하려는 순간 오히려 참된 자신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道)는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흐름에 자신을 내맡길 수는 있지만, 그 흐름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사랑과 응답의 관계를 도(道)는 줄 수 없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모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답은 서로 달랐고, 각각의 답은 또 다른 질문들을 낳았습니다. 이성인가, 영혼인가, 관계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현대의 혼란

오늘날 이 질문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SNS 는 이 혼란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편집하고 게시합니다. 인스타그램의 나, 페이스북의 나,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의 나 — 이 모든 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까? 수백 명의 팔로워가

있어도 진정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외롭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정체성 위기가 역사상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은 자아 개념, 정체성 발달, 자존감 등의 언어로 이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더 건강한 자아를 만들고, 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아를 자아로 치유하려는 시도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를 나뭇가지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유전자의 생존 기계로 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결국 유전자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한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우리는 유전자 기계로서, 유전자라고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들을 맹목적으로 보존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인간의 사랑, 희생, 의미 추구, 도덕적 감각은 모두 생존을 위한 진화적 메커니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것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억울한 자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도, 아름다운 음악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도 — 모두 유전자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인간이 느끼는 삶의 의미와 존엄성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됩니다.

오늘날 **문화**는 **"스스로를 정의하라"**고 외칩니다. 너의 정체성은 네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별도, 가치관도, 삶의 방향도 스스로 결정하라고 합니다. 언뜻 이것은 최고의 자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많아질수록 정체성의 혼란도 깊어집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말은 동시에 무엇이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에 나선 것과 같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정체성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는 이 혼란의 근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현대인은 인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 자체가 틀립니다.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출발점의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다른 출발점

모든 철학적 답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 나의 영혼, 나의 선택, 나의 경험 —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 순환 안에서 인간은 결코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자신을 만든 적도 없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스스로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에 대한 완전한 답을 스스로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성경의 첫 문장은 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제 2 강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이 바뀌면 질문도 바뀝니다. 더 이상 "나는 스스로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 139:1)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어떤 순간에 가장 강하게 느꼈습니까?

- 동서양의 철학적 답들 중 당신의 마음에 가장 가깝게 느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이 어디서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까?
-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말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 시편 139:1 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안도입니까, 불편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입니까?

질문 2. 나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 하나님의 형상, 교제를 위해 지음 받은 존재

창조의 정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빛도, 물도, 땅도, 식물도, 해와 달도, 모든 생물도 —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은 잠시 멈추시듯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 1:26)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인간 창조 앞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는 듯한 선언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인간 창조를 결정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의도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형상(צֶלֶם, 첼렘)"**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결코 낯선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의 형상'**은 오직 왕에게만 부여되는 표현이었습니다. 파라오만이 신을 지상에서 대표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 왕적 특권을 특정 개인이나 계층이 아닌 모든 인간에게 선언합니다. 김진혁 교수는 이것이 고대 세계에서 얼마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었는지를 강조합니다. 왕만이 누리던 존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이 선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혁명적입니다. 빈부, 건강, 나이, 성별, 민족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왕적 존엄을 지닌 존재입니다.

또한 창세기 2 장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창 2:7).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 창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 세 가지 관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신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답해 왔습니다. 각 관점은 서로 다른 측면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형상의 풍성함을 함께 드러냅니다.

첫째, 실체적 관점(Substantive View)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뱅 등 대부분의 고전 신학자들이 지지해 온 입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 있는 특정한 자질, 즉 이성, 의지, 도덕적 능력, 언어 능력 등에서 찾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에드워즈와 칼뱅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을 동물과 구분시키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그 요소로 영혼, 정신적 능력(이성·추상적 사고), 도덕적 완전성, 육체적 존재, 그리고 땅에 대한 통치권을 제시합니다. 웨인 그루뎀(Wayne Grudem) 역시 형상을 도덕적·정신적·영적·관계적·육체적 차원을 포함하는 총체로 이해하며, 어느 한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다차원적 실재임을 강조합니다.

이 관점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부분 성경적 근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과 의지, 도덕적 능력, 언어 등의 실체적 요소들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체적 측면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에릭슨(Millard Erickson)은 "비록 인간에게 형상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인식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인간 속에 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인허 교수는 이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 안에 내재한 형상 덕분에 인간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며, 심지어 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적 인간론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타락 이후의 인간까지도 존재의 유지와 성장 모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에릭슨의 입장은 오히려 인간의 자립성을 출발점으로 삼는 근대 인본주의적 개인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관점은 인간 이성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인간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존적 존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적 인간론은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을 가르칩니다.

둘째, 기능적 관점(Functional View)입니다. 창세기 1 장 26 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직후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근거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형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후크마(Anthony Hoekema)는 이 점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사(ambassador)**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구현해야 하며, 이 통치는 인간의 자율적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책임 있는 청지기적 통치입니다.

이 관점이 가리키는 통치와 청지기적 사명은 분명 성경적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전체로 볼 때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선 창세기 1 장 26 절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와 **"다스리게 하자"**를 동일시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에릭슨이 지적하듯, 인간의 다스리는 기능과 통치권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후 명령식으로 부과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바로 그 형상이시지만, 그분의 삶은 다스리는 자와 달리 자신을 끊임없이 복종시키시는 삶이었습니다(빌 2:5-8). 청지기적 통치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설정될 때 비로소 온전히 수행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왕 노릇**(롬 5:17),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통치하는 삶**이야말로 기능적 관점이 가리키는 바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따라서 기능적 관점은 형상의 전체가 아닌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셋째, 관계적 관점(Relational View)입니다. 에밀 브루너(Emil Brunner)를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이 강조해 온 입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 고정된 실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렌츠(Grenz)가 설명하듯,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적으로 **"아담은 상실했지만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창조주와의 특별한 관계"**로 보았습니다. 김진혁 교수의 정리에 따르면, 브루너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존재'라는 위치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심해도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은혜로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형상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렌츠(Stanley Grenz)는 이 관계를 수직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창세기 1:27 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선언은 단지 생물학적 구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생명이 인간의 공동체적 삶 안에 반영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만 브루너의 경우 하나님의 형상이 오직 대면과 만남을 위한 능력으로만 정의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따라오는 신학적 함의는 풍성합니다. 김진혁 교수는『질문하는 신학』에서 관계적 관점이 가져오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관계를 원하시는 사랑의 존재로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절대 타자가 아니라, 절대적 주권과 초월성이 있으시지만 인간과 관계를 원하시고 직접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둘째, 자신의 근원적 관계성을 깨달은 인간은 타자를 단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엄과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며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을 자율적 개인으로만 보려는 계몽주의적 주체 개념, 인간을 물리적 대상 중 하나로 파악하려는 유물론적 태도, 욕망을 통제하여 인간을 소비적 주체로 전락시키는 천박한 자본주의 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경적 인간론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재조명하게 합니다. **셋째, 타락도 관계의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모든 관계를 뿌리부터 왜곡시켰습니다.

이 세 관점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가 지적하듯이,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어느 한 측면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관점을 단순히 병렬로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적 관점을 중심축으로 삼을

때, 실체적·기능적 측면은 비로소 그 온전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성과 의지, 도덕적 능력과 언어는 그 자체로 형상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구조적 토대입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수행될 때 비로소 착취가 아닌 청지기적 돌봄이 됩니다. 결국 실체적·기능적·관계적 측면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의 풍성함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드러내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습니다. 세 관점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성·의지·언어와 같은 실체적 요소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면 통치는 청지기적 돌봄이 아니라 착취와 파괴가 됩니다. 세 관점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전체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실체적·기능적·관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관점을 모두 살펴보고 나서도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된 인간이, 그 형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과연 스스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인허 교수는 이 질문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직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형상이 훼손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의 계시에 대한 이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이성으로 형상의 온전한 모습을 규정하려 할 때, 그것은 이미 왜곡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체적 관점이 지닌 근본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성과 의지 자체가 이미 훼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상의 온전한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 1:15)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김인허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상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이자 기준이 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구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대로(according to)" 창조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인간이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울이 비추어야 할 원형 자체입니다. 후크마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형상(the true image)이십니다. 형상의 회복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아담: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고전 15:45).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대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6-8)

김인허 교수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의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한 번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실패하지 않으셨으며, 한 번도 사랑의 동기를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철저히 피조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측면에서 의존하며 겸손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역시 이 역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의존하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서 비난받고 멸시받던 계층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인정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존엄을 언제나 존중하며, 그들을 소유하거나 이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하시고 섬기시다가 마침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눅 19:10; 막 10:45; 요 15:13). 이것이 기능적 관점에서 말하는 청지기적 통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통치는 지배나 착취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상(Imago Christi)입니다. 김진혁 교수의 말처럼, 형상의 진정한 의미는 창세기 1 장만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 성화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회복에 참여합니까? 바울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 3:10)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

그루뎀은 이 회복을 창조(Creation) → 왜곡(Distortion) → 회복(Recovery) → 완성(Restoration)이라는 네 단계의 역사로 설명합니다. 형상의 회복은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여정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회복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바빙크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에덴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형상은 정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타락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처음 창조의 목적보다 더 높은 완성으로의 전진입니다. 그 완성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일 3:2)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인간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자 성경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인간의 구성: 교제를 위한 구조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된 존재입니까? 이성과 의지와 도덕적 능력,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이 존재는 몸과 영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논의해 왔습니다.

이분설(Dichotomy)은 인간이 몸(body)과 영혼(soul/spirit)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개혁신학의 주류 입장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루이스 벌코프가 지지하며, 성경에서 인간을 몸과 영혼의 두 차원으로 묘사하는 본문들(마 10:28; 히 4:12 등)을 근거로 삼습니다.

삼분설(Trichotomy)은 몸(body), 혼(soul), 영(spirit)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3 절의 "영과 혼과 몸"과 히브리서 4 장 12 절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를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이 인간을 세 개의 독립된 실체로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 전체를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무분설 혹은 **통전적 이해(Monism)**는 인간을 나눌 수 없는 통일된 전인(whole person)으로 봅니다. 현대 성경신학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히브리적 인간 이해와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느 입장이 옳으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각각의 단어들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사용하는 "영(pneuma)"과 "육(sarx)"의 대비가 핵심입니다.

헤르만 리더보스는 바울의 인간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과 영은 인간을 구성하는 두 부분의 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과 자기 자신을 향한 삶의 방향적 대비입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사람(pneumatikos)"은 영혼이 특별히 발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sarkikos)"은 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2 장의 말씀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 2:7)

하나님의 생기(neshamah)를 받은 인간은 단순히 살아있는 생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빙크가 강조하듯, 인간은 몸과 영혼이라는 두 실체의 조합이 아니라, 흙의 물질성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로 결합된 통일된 전인입니다. 몸을 포함한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결국 몸과 영혼의 구성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구성이 어떠하든, 그 모든 구성 요소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교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몸도 —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위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실체적 관점과 인간의 구성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구성 요소의 분류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구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가 성경적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의 온전한 모습을 본다는 것이, 오늘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 형상의 회복이 "에덴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더 높은 완성으로의 전진"이라는 사실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 당신의 몸과 마음과 감정 모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 예수님이 멸시받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셨다면, 당신 주변에서 그렇게 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질문 3. 나는 왜 관계를 원하는가?

— 관계를 위해 지음 받은 존재

채워지지 않는 갈망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아무리 성공해도 관계가 없으면 삶이 공허합니다. 현대 사회는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사회이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사회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어 고독합니다.

이 갈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루이스(C.S. Lewis)는 이 질문에 예리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루이스의 말처럼, 충족되지 않는 갈망 자체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실재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관계를 그토록 원하고, 관계 안에서 기쁨을 느끼며, 관계가 끊어질 때 그토록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관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창조의 흔적입니다.

삼위 하나님: 관계이신 하나님

왜 인간은 이토록 관계를 갈망하는가? 그 답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성령은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삼위일체의 이 내적 교제를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즉 '삼위가 서로 안에 거하며 서로를 통해 사시는 **상호내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몰트만이 강조하는 것은 이 교제가 하나님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본질적으로 열려 있어서, 인간과 세계를 향해 흘러넘칩니다. **"참된 인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의 내적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관계가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인간은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몰트만의 표현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는 인간에게 부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핵심 구조입니다.

창세기의 선언: 혼자는 좋지 않다

창세기 2 장은 인간의 관계적 본성을 놀랍게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 2:18)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며 **"좋았더라"**를 반복하시던 창조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아직 타락이 없는 완전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타락 이후에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 창조의 설계 안에 있었습니다.

바르트(Karl Barth)는 창세기 1 장 27 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두 행이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해석적 연결임을 주목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가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고립된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존재하는 두 인격 사이의 관계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유비 관계론(analogy of relations)이라고 부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나와 너(I and Thou)"의 관계 구조가 인간의 존재 방식 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르트에게 **인간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관계 안에서입니다.** 인간이 타자를 인정하고, 타자에게 말을 걸고, 타자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어주심의 삶을 피조물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관계의 세 차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단일한 방향이 아니라 세 차원으로 펼쳐집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관계의 근원이자 중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는 일찍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주님을 향하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패커(J. I. Packer)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심장을 뛰게 만들도록 계산된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을 향한 관계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 장에서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함께 말씀하십니다(37-40 절). 이 두 계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켈러(Timothy Keller)는 삼위일체 교리가 이것을 가장 깊이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각 위격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서로를 향해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는 이것을 **"상호 자기 증여(mutual self-giving)"**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구조를 파괴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인간의 삶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셋째, 창조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름 받았습니다. 창세기 1 장 28 절의 **"다스리라"**는 명령은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돌봄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켈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이 세계를 아름답고 정의롭게 가꾸는 것을 **"창조 세계 안에 기록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드러내는 행위"**로 이해합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 받은 인간의 돌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차원의 관계는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웃과 창조 세계를 향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웃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무너질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마 22:40)이라고 하신 것은 이 관계들이 서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깨어짐과 외로움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본래 속해 있던 사랑의 교제로부터 멀어졌다는 존재론적 신호입니다. 지지올라스(John Zizioulas)의 통찰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존재는 곧 교제(Being as Communion)"**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의 교제이듯, 그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재 방식도 교제입니다. 관계 단절은 단순히 감정적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론적 손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사랑하기를 멈추고 사랑받기를 멈추는 것이다."** 관계없는 존재는 참된 의미에서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바로 이 이탈의 증거입니다. 창조 당시 우리는 사랑의 교제로 초대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 진짜 관계에 대한 목마름 — 그것은 우리가 본래 속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왜 깨어졌는지 — 그 이야기는 다음 질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외로움의 해답은 단순히 더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거리를 뛰어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 갈망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갈망인지, 아니면 더 깊은 곳의 무언가를 향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 외로움이 감정적 고통이 아니라 존재론적 단절의 신호라면, 오늘 그 외로움이 나에게 무엇을 향해 돌아가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관계도 새로워진다면,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관계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관계가 당신의 이웃과의 관계, 일상의 관계에 어떻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교제"라면, 나의 관계 방식은 그것을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질문 4.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 죄란 무엇인가?

— 빗나간 사랑, 뒤집어진 중심

죄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

우리는 죄를 말하기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내용보다 먼저 그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현대 문화는 죄라는 개념 자체를 낯설어하거나 거부합니다. **심리학**은 죄책감을 자기 혐오나 정서적 미성숙의 산물로 해석하고, **사회학**은 잘못된 행동을 환경과 구조의 산물로 설명합니다. **윤리학의 도덕적 상대주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죄"는 종교적으로 편협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마르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묻는다면, 오직 하나의 답이 있다 — 죄다."** 그는 인류의 개인적, 사회적, 역사적 문제들이 결국 하나의 뿌리로 귀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얽힘의 근원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곧 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J. I. Packer)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십자가도 가벼워집니다. 은혜도 값싸진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단순히 인간의 나쁜 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신학적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질문 4 에서 죄를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성경의 언어들

성경은 죄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단어가 아니라 다양한 단어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 각각의 단어들은 죄의 서로 다른 면을 조명하며, 함께 모일 때 죄의 전체 윤곽이 드러납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죄의 단어는 헬라어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과녁을 빗나간다"**는 뜻입니다(롬 3:23). 이것은 죄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 이상임을 시사합니다. 죄는 인간이 본래 향해야 할 목적지,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의도된 본래의 삶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다른 단어 **파라프토마(παράπτωμα)**는 **"발을 헛디디다"**, **"곁길로 빠지다"**를 뜻합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바른 자리에서 미끄러져 벗어난 상태를 묘사하는 이 단어는, 죄가 인간의 연약함과 취약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 장 1 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며 그것을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발을 헛디디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엡 2:1). **아노미아(ἀνομία)**는 **"법 없음"**, **"불법"**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 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녀 됨과 사랑의 관계를 중심 주제로 다루는데, 여기서 "법(νόμος)"은 모세의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존재 안에 새겨 주신 사랑과 교제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죄는 곧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요일 3:4).

구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풍부한 어휘들이 사용됩니다. 히브리어 **하타(חָטָא)** 역시 **"과녁을 빗나감"**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방향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하마르티아와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는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죄의 일반적 표현입니다. **페샤(פֶּשַׁע)**는 **"반역"**, **"모반"**을 뜻하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를 강조합니다. 이사야 1 장 2 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탄식하시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페샤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본(עָוֹן)**은 **"비뚤어짐"**,

"왜곡됨"으로, 죄가 본래 바른 것을 뒤틀어버린다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51 편 2 절에서 다윗이 **"나의 죄악(아본)을 말갛게 씻으시며"**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뒤틀려버린 자신의 존재 자체를 회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단어들을 함께 놓고 보면,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방향의 이탈이자, 반역이자, 존재의 왜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이를 종합하여 죄를 **"행위, 태도, 본성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에 순응하지 못하는 모든 실패"**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도덕법의 궁극적 기준은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하셨을 때,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가 드러납니다.

이 정의의 핵심은 죄가 단지 외적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노"가 이미 살인이고(마 5:22),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이미 간음임을 가르치십니다(마 5:28). 바울은 에베소서 2 장 3 절에서 "육체의 욕심"뿐 아니라 "마음의 원하는 것"까지도 죄의 영역에 포함시킵니다. 이처럼 죄는 행위의 차원을 넘어 태도와 욕망과 본성의 차원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죄의 뿌리: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는 것

성경은 수많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지만, 그 모든 죄의 공통된 뿌리는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해 왔으며, 그 답으로 반복해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는 것"**, 즉 **자기중심성(self-centeredness)**입니다.

창세기 3 장은 죄의 기원을 기록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창 3:5). 여기서 유혹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즉 자신이 스스로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판단이 최고 권위가 되려는 욕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는 죄의 본질을 **"무질서한 사랑(disordered love)"**으로 설명합니다. 그에게 사랑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이 피조물을 향해 돌아설 때, 사랑은 무질서해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섬과 피조물을 향한 전환"으로 묘사합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 없이 피조물 자체를 사랑의 최종 목적지로 삼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의 유명한 고백이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안식을 얻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 돌아선 마음, 곧 죄의 상태입니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죄의 본질을 로마서 1 장과 3 장을 연결하며 설명합니다. 로마서 3 장 23 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에서 그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는 이것이 로마서 1 장 23 절, 즉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과 바꾸었다"**는 말씀과 직접 연결된다고 봅니다. 죄는 규칙을 어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본질은 금지된 열매를 먹은 행위가 아니었다. 그 행위 이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 열매를 더 원했다. 그것이 죄의 궁극적 본질이다." **죄는 먼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는 마음의 방향 문제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뿌리이며,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Tim Keller)는 파이퍼의 이 통찰을 **"우상숭배(idolatry)"**라는 언어로 발전시킵니다. 켈러에게 우상은 단지 고대의 신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 재물이나 관계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켈러는 우상을 식별하는 실용적인 질문을 제시합니다. **"기도하고 바랐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당신이 폭발적인 분노나**

깊은 절망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진짜 신일 수 있다." 켈러는 또한 죄를 우상숭배로 이해할 때 그것이 단순히 규칙 위반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평면적인 이해이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입체적인 이해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를 법 위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요구하고, 착취하고, 결국 우리를 짓밟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구원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처럼 죄의 뿌리는 특정한 행동에 있기 전에 **예배의 방향**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는 자기중심성은 모든 죄가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죄의 보편성: 아담과 우리

죄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전 인류를 포괄적으로 사로잡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 장 12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보편성, 즉 모든 인간이 죄의 문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 신학의 일관된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편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는 신학 전통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서방교회 전통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가 체계화한 **원죄(Original Sin)** 교리를 중심으로 죄의 보편성을 설명합니다. 원죄는 두 차원을 가집니다. 하나는 **원죄책(original guilt)**으로,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오염(original pollution)**으로, 타락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이 두 차원을 함께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벌코프(Louis Berkhof)와 바빙크(Herman Bavinck)도 같은 맥락에서 강조합니다. **원죄는 뿌리**이고,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짓는 개개의 죄들, 즉 **자범죄(actual sin)는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무수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다면 자범죄도 없습니다.

동방교회 전통은 이 문제를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동방 교회는 죄책의 유전을 부정합니다. 죄책은 오직 자신이 직접 지은 행위에만 따르는 것이지, 아담의 죄책이 후손에게 전가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죄책이 아니라 죽음과 부패한 본성, 그리고 죄를 향한 경향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관점에서 구원은 죄책의 사면보다 죽음과 부패로부터의 해방과 변화로 이해됩니다. 동방 교회는 이것을 **신화(θέωσις, theosis)**라고 부르는데,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벧후 1:4)라고 표현한 바로 그것입니다. 강조점은 법정적 용서보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편, **원죄**와 **자범죄**라는 서방 신학의 구분 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원죄**를 역사적·생물학적 전달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인간 실존의 보편적 구조**로 이해합니다. 죄의 보편성은 아담으로부터의 유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실존적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아담과 우리의 죄를 구분하기보다, **모든 인간이 아담과 동일한 방식으로 "첫 번째 죄인"**이라는 인류의 연대적 죄 개념을 강조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도식보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라는 통합적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원죄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실제 죄들**, 즉 **자범죄(actual sin)**입니다. 루터(Martin Luther)는 **"동시에 의인이며 죄인(righteous and sinner at the same time)"**이라는 명제로, 칭의를 받은 신자 안에서도 여전히 죄의 잔재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칼뱅(John Calvin)은 이것이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존 오웬(John Owen)은 로마서 7 장 21 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 원리"**에 근거하여, **내주하는 죄(indwelling sin)**가 신자 안에서 하나의 원리로 지속적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합니다. 그의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Be killing sin or it will be killing you)." 오웬의 이 경고는 신자가 죄와의 싸움을 평생 진지하게 여겨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성화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질문 6 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죄의 깊이: 전적 부패

죄는 인간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국소적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과 종교개혁 신학은 죄가 인간 존재 전체에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전적 부패(Total Depravity)"**라고 부릅니다. 스프라울 (R. C. Sproul)은 이 표현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근원적 타락(Radical Corruption)"**이라는 표현을 선호했습니다. "근원적"이라는 말의 어원은 뿌리를 뜻하는 radix 입니다. 죄의 영향이 인간 존재의 표면이 아니라 그 뿌리와 핵심에까지 미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표현을 쓰든 핵심은 같습니다. 죄의 영향이 인간 인격의 모든 부분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적"이라는 말은 죄의 강도가 아니라 범위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인간도 자녀를 사랑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괜찮은 상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이 인간 안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이 전적 부패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 그 어느 것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첫째로 지성이 어두워졌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선언합니다(롬 8:7).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받아들이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 장 14 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적 능력 자체의 소멸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도 수학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위대한 문명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감각, 즉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능력이 죄로 인해 손상된 것입니다. 로마서 1 장 18 절은 이를 **"진리를 불의로 막는다"**고 표현합니다.

둘째로 감정이 뒤틀렸습니다. 로이드 존스 (D. Martyn Lloyd-Jones)는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감정이 균형을 잃었다고 설명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음 받은 감정이 이제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 장 21 절에서 묘사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으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 은 단순한 지적 오류가 아니라 감정과 욕망 전체의 뒤틀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타락한 감정의 실상입니다.

셋째로 의지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롬 3:10-11)라고 선언합니다. 칼뱅 (John Calvin)은 타락 이후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강제로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원함 자체가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루뎀 (Wayne Grudem)은 이를 **"영적 선을 행할 능력의 전적 결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은 전적 부패와 함께 **"전적 무능력(Total Inability)"**을 말합니다. 인간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은 개혁주의 전통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처럼 **전적 부패**는 지성, 감정, 의지 — 인격의 모든 차원에 걸쳐 있습니다. 인간 안에 죄의 영향을 피한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의 목적은 인간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전적 부패는 오히려 구원이 어디서 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인간 안에서 구원의 출발점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여기서 멈춥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이나 지성에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 진노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침묵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 반응으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wrath of God)입니다. 현대인에게 이 주제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패커 (J. I. Packer)는 핑크 (A. W. Pink)의 말을 인용하며,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한 언급이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언급보다 더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변덕스럽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처럼 변덕스럽거나 자기탐닉적이거나 성마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도덕적 악에 대한 올바르고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종종 감정적이고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악 앞에서 보이시는 일관되고 의로운 반응입니다. 패커는 이렇게 묻습니다. "악을 선과 똑같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자신의 세계 안에 있는 악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이면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는 재판관이 정의를 집행하는 것처럼 사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패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사법적입니다. 즉 그것은 정의를 집행하는 재판관의 진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 장 5-6 절에서 "네 마음의 완고함과 회개치 아니함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정확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완전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패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이 하나님에 의해 부과된 경험이기 이전에,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부터 물러섬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 장 18-19 절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이 그 자체로 이미 진노 아래 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볼 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죄 앞에서 취하는 진지한 자세입니다.** 패커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셔야 할 때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롬 5:9). **하나님의 진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의미도 비로소 그 깊이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로마서 1 장 18 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현재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진노는 단지 종말론적 심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죄의 결과들을 경험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 장 24 절, 26 절, 28 절에서 반복되는 **"내버려 두셨으니"**라는 표현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욕망에 내버려 두신 것, 그것 자체가 진노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패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노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가 드러납니다. 패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죄인과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 사이에 주님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진노는 결코 우리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 지금도, 그 이후에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당신은 죄를 주로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나쁜 행동의 목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적 이탈입니까? 이 두 이해는 삶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무질서한 사랑", 켈러는 "잘못된 예배"로 설명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죄가 행동만이 아니라 태도와 본성의 문제라면(마 5:21-28), 당신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 씨름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 지성, 감정, 의지 모두가 죄의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함의 반응이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질문 5. 죄는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 깨어진 형상, 뒤틀린 관계

무언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름다운 관계가 어느 순간 미움으로 변하는 것을, 선하게 살려 해도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멀어지는 자신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전 질문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죄가 인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깨어진 형상: 훼손되었으나 지워지지 않았다

죄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훼손된 것과 완전히 지워진 것은 다릅니다. 칼뱅(John Calvin)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남아있는 형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뒤틀려서, 그것은 **"끔찍한 기형(dreadful deformity)"**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벌코프(Louis Berkhof)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지식, 의, 거룩함과 같은 **"좁은 의미의 형상"**은 타락으로 상실되었지만, 인간이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라는 **"넓은 의미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빙크(Herman Bavinck)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왜곡시켰다."** 마치 거울이 깨진 것과 같습니다. 깨진 거울도 여전히 형상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곡되고 부서진 형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창세기 9 장 6 절이 보여줍니다. 홍수 이후, 인류가 극도의 타락을 경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는 이유로 살인을 금하십니다. 야고보서 3 장 9 절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금합니다. 타락 이후에도, 가장 죄악된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 존엄성의 근거이며,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후크마(Anthony Hoekema)는 이 잔존하는 형상을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구조적 측면**이란 타락 이후에도 남아있는 인간의 인격적 특질들, 즉 이성, 언어, 도덕의식, 창조성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죄로 인해 오염되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능적 측면**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비로소 온전히 발휘되는 것,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후크마에 따르면 타락은 이 기능적 측면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 형상을 올바르게 기능하게 하는 관계적 토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두 측면의 구분은 왜 타락한 인간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는지, 동시에 왜 인간이 그토록 근본적인 회복을 필요로 하는지를 함께 설명해 줍니다. 구조적 측면은 모든 인류에게 남아 있어 인간 존엄성의 보편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기능적 측면, 즉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형상이 본래 의도된 방향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됩니다. 형상은 모든 인간 안에 남아 있지만, 그 형상의 온전한 기능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살아납니다.

관계의 사중적 파괴

죄는 인간 존재의 내면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맺고 있던 모든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창세기 3 장은 이 파괴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전면적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창조된 인간은 본래 네 방향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죄는 이 네 관계를 동시에, 그리고 전면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 3:8). 죄를 짓기 전, 그들은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숨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사 59:2). 패커(J. I. Packer)는 이 단절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잘리면 잎이 시들듯,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 존재 전체의 시들음으로 이어집니다. 팀 켈러(Tim Keller)는 이 단절이 단순한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 상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 중심이 뽑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의 고백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혼의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창 2:25). 그것은 단순히 몸의 노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수용과 평화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 즉시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창 3:7). **수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이 수치심이 죄가 인간의 내면에 가져온 가장 즉각적인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죄책감, 수치심, 자기혐오, 자기기만 —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맺게 된 뒤틀린 관계의 모습들입니다. 켈러(Tim Keller)는 이 수치심이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라고 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규정할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타인의 시선, 성취, 소유, 능력으로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 깊은 자기혐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그 뿌리에 이 단절이 있습니다.

셋째, 타인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먹었느냐?"고 물으시자 아담은 즉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 함께 죄를 지은 동반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이것이 죄가 인간관계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서로를 향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던 관계가 서로를 이용하고 탓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켈러(Tim Keller)는 이것이 오늘날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착취, 폭력의 뿌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게 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죄를 "자기 안으로 굽어 있는 인간(man curved in on himself)"**으로 묘사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 있는 인간은 타인을 진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타인은 항상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보입니다. 결혼의 파탄, 공동체의 분열, 민족 간의 전쟁 —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자기중심적이 된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넷째,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뒤틀렸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 3:17).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창조 세계도 더 이상 인간과 조화를 이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할 인간이 이제는 땅과 싸우며 수고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 장 20-22 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인간의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창조 세계는 지금도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빙크(Herman Bavinck)는 이 창조 세계의 신음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죄의 파급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자 그 이탈의 물결이 인간이 관계 맺는 모든 것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의 파괴, 자연재해의 증가, 인간과 자연의 불화 — 이것들은 단순한 생태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창조 세계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희망을 말합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롬 8:19). 인간의 회복이 창조 세계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의 침입

죄가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 이 죽음은 세 차원을 가집니다.

영적 죽음은 즉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은 그 순간**이 바로 **영적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 장 1 절에서 믿기 전의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로 묘사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종교적 활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 노력하지만,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은 죽음 위에 쌓아올린 것일 뿐입니다.

육체적 죽음도 죄의 결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은 불멸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창 3:19).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침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패커(J. I. Packer)는 **육체적 죽음이 단지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 사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가시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저항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죽도록 지음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극복을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모든 파괴와 죽음 앞에서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가장 강하게 느끼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단순한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 자기 자신의 왜곡, 관계의 파괴라는 더 깊은 죽음의 흔적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 죄책감과 수치심을 경험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는 아담처럼 반응합니까? 그렇다면 그 깨어진 현실 앞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지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과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줍니까?
- 죄가 가져온 죽음이 단지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고전 15:57)이라는 선언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질문 6.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가?

—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형상

소망의 출발: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죄의 이야기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 장을 주의 깊게 읽으면 놀라운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버린 인간을 향해 여전히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선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최초의 복음' 또는 '복음의 원형'이라는 의미로 **'원시복음(proto-gospel)'**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름은 없지만, 오실 분에 대한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약속이 인간의 회개나 결단에 앞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망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선물입니다.** 죄로 파괴된 모든 관계의 회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마침내 역사 안에서 한 인물로 태어납니다.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질문 2 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순한 모범의 제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훼손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the last Adam)"**이라고 부릅니다(고전 15:45). **첫 번째 아담**이 죄로 인류를 죽음 안으로 이끌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순종으로 인류를 생명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롬 5:17).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빌 2:6-8). 아담이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면,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담이 죽음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패커(J. I. Packer)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에게 마땅히 내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진노가 더 이상 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 용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지 죄가 사해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창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로운 창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새로운 피조물" — 이것은 개선이나 도덕적 향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됩니다. 수치 가운데 숨어있던 인간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롬 8:15).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이 연합은 법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생명의 실제적인 나눔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롬 6:6),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롬 6:8),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입니다(엡 2:6).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의 생명이 신자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이 회복의 구조를 네 단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에서 온전히 주어졌고(Creation), 타락으로 왜곡되었으며(Distortion),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고(Recovery),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Restoration). 이 네 단계는 단순한 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게 해줍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창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타락), 어떻게 회복되는가(그리스도), 어디로 가는가(완성) — 이 네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이 구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전체를 완성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바빙크(Herman Bavinck)는 이 회복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회복시키며, 회복시킬 뿐 아니라 완성시킨다."** 은혜는 창조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본래 향하고 있었던 완성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타락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원래 창조의 목적보다 더 높은 완성으로의 전진입니다.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더 깊은 교제, 더 영광스러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됩니다. 첫 번째 창조가 "좋았더라"였다면, 새 창조는 "더욱 좋더라"입니다. **회복은 복원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브루너(Emil Brunner)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다. 인간이 처음 창조된 목적,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전보다 더 깊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실현된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창조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생명의 흐름이며, 신자의 삶 전체를 빚어가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삶의 여정, 즉 성화로 눈을 돌립니다.

이미와 아직: 회복의 여정

그러나 이 회복은 지금 이 땅에서 완전히 경험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의 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실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관계는 여전히 깨어져 있으며, 몸은 여전히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3 장 18 절은 이 여정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 이것은 과정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여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화를 단순한 도덕적 진보나 단계별 성장으로만 이해하면 위험이 따릅니다. 단계별 성장의 도식은 자칫 자신과 타인을 성장의 척도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존 머레이(John Murray)의 **"결정적 성화(definitive sanctification)"** 개념은 중요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머레이는 신약성경이 성화를 진행 과정보다 오히려 결정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으로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고전 1:2)이라고 부를 때, 그리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전 6:11)고 선언할 때, 이것은 모두 과거시제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다고 선언된 존재로서 그 실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토런스(Thomas F. Torrance)는 이 방향을 더 깊이 발전시킵니다. 그에게 성화는 도덕적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미 완성된 객관적 현실이며, 신자는 성령을 통해 그 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 이것이 성화의 본질입니다. 동방교회의 **신화(θέωσις, theosis) 전통**도 같은 방향에서 성화를 도덕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역시 성화를 도덕적 성취나 진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자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내주하는 죄와의 씨름은 도덕적 진보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의 씨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성화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이며(갈 5:22-23), **그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방식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 안에서 존재하시듯,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참여하는 신자의 삶에서 맺히는 가장 본질적인 열매도 사랑입니다. 성화의 본질과 그 과정에 대한 더 깊은 논의는 제 5 강 구원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완성: 그날의 영광

이 회복의 완성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 이것이 소망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날에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봅니다(고전 13:12). 지금은 죄와 싸우며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날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롬 8:19). 단지 인간뿐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새 창조입니다(계 21:5).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 — 이것이 **인간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자 성경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로이드 존스 (D. Martyn Lloyd-Jones)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 인간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처음 창조된 목적보다 더 높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당신은 지금 이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실패의 현실에 더 압도되어 있습니까? 죄와 씨름하는 당신의 모습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이 당신에게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그 실감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 성화를 도덕적 진보나 단계별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는 약속(요일 3:2)이 당신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그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당신 자신의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가며

나는 누구인가 — 다시 서는 자리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함께 질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동서양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이 질문과 씨름했지만, 그 모든 답은 또 다른 질문을 낳았습니다. 이성인가, 영혼인가, 자유로운 선택인가 — 그 어느 답도 인간이 느끼는 공허함과 갈망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답이 "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에서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관계를 위해, 교제를 위해, 사랑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그 모든 관계가 뿌리부터 뒤틀렸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숨어버린 인간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 물으신 그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 기독론과 구원론이 그 이야기를 펼쳐줄 것입니다. 인간론은 그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도 비로소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 형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삶이 완벽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죄와 씨름하는 자리에서도, 관계의 상처

앞에서도, 외로움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입니다. 교회는 나와 너가 함께 이 정체성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